

■ 공원 탐방

④ 중앙공원 또 마지막 남은 녹색의 땅

중앙공원 내 대표적인 수자원인 풍암저수지와 주변 전경. 금호지구와 풍암지구, 상무지구 등 광주의 주요 택지개발과 함께 도심 외곽의 방치된 녹지였던 중앙공원은 말 그대로 광주의 중심이 됐다.

중앙공원은 말 그대로 광주의 '센트럴파크(Central Park)'에 해당된다. 광주 중심에 위치하며, 서구와 남구에 걸쳐 있고, 면적만 293만9천337㎡에 달한다. 이 넓은 녹지 주변으로는 금호지구, 풍암지구, 상무지구 등 택지지구가 둘러싸고 있으며,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모두가 평일이나 주말 가릴 것 없이 즐겨 찾는 공원이다. 광주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이 공원은 따라서 언제나 새로운 사업 대상으로 물색 됐으며, 이 과정에서 '보존'과 '개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천혜의 자연과 광주 중심에 해당되는 지리적 장점, 간선도로망과 작은 산책로까지 두루 갖춘 교통 여건 등으로 과거 특급호텔 부지로 부각됐다가 시민 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유스호스텔 신축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 최대 면적 293만㎡ '산소 공장'



광주시 서구와 남구에 걸쳐 존재하는 중앙공원 위성사진. 그 규모만큼 접근할 수 있는 도로나 길이 산재해 있어 시민 모두가 즐겨 이용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눈 내린 중앙공원을 찾았다. 평일인데다 추운 날씨에도 중앙공원 내 풍암저수지를 걷는 사람들은 수백 명에 달했다. 노인과 주부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서구 화정동, 북구 운암동, 남구 봉선동 등에서 산길을 따라 2~3시간씩 걸어서, 이곳을 찾은 '갯길 마니아'들이었다.

정년퇴임 뒤 건강을 생각하며 걷는다는 김동식(63·서구 화정동)씨는 "매주 2~3번 정도 집에서 출발해 광주가톨릭대학 평생교육원을 거쳐 중앙공원 내 산길을 타고 풍암저수지까지 오간다"며 "중앙공원 내 다채롭게 펼쳐진 자연을 보며 마음도 가라앉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중앙공원 애찬론을 폈다.

1975년 공원 지정...자연자원 골고루 갖춰

광주 각지의 주민들이 중앙공원을 즐겨 찾는 이유는 저수지나 농지, 임야, 구릉지 등 자연자원을 골고루 갖췄고, 안팎으로 산책로와 접근도로가 비교적 좋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먼저, 셋길이나 산책로는 백인길, 늘푸른길, 우정1길 등 수십 개에 달하고 있다. 접근로는 화정로와 운천로·송암로, 회재로, 월드컵4길로·광자우로 등이 공원 사방을 감싸고 있으며, 그 중간에 광저우로와 샌다이로가 지나간다.

중앙공원은 지난 1975년 광주의 제 19호 공원으로 지정됐다. 당시에는 도심 외곽의 방치된 녹지였지만, 광산구가 광주시로 편입되면서 광주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지난 1992년에 발간된 '광주도시계획연혁'에 따르면, 75년 지정 당시 면적은 53만5천㎡에 불과했지만, 1985년 면적이 186만8천800㎡에 이르는 26호 공원 '방구공원'과 통합됐다. 1992년에는 주변 녹지까지 포함

시켜 면적이 301만1천952㎡까지 확대됐지만, 그 후 주변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조금씩 면적이 줄어들어 현재에 이르렀다.

광주도시계획연혁은 "운동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광주의 상징적이며, 종합적인 성격의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중앙공원 지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업무체육관과 광주월드컵경기장이 이 공원 내 혹은 인근에 배치된 것도 이러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71%가 사유지...277만㎡ 개발 못하고 방치

하지만, 중앙공원 역시 다른 도시공원과 마찬가지로, 공원 내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원 조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와 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공원 내 풍암저수지와 그 주변에 대해서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공간은 상대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공원 293만9천337㎡ 중 조성된 면적은 16만804㎡에 불과하며, 나머지 277만18천533㎡에 이르는 면적은 여전히 방치돼 있다. 사유지가 공원 면적의 71.8%(211만1천983㎡)를 차지하면서, 일부 부지가 경작지나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재해 있는 묘지, 10여동에 이르는 주택과 축사 등도 공원 이미지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원으로 지정된 뒤 35년이 넘었지만, 사유재산권만을 규제할 뿐 공원 전반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개발 논란만 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더라도 중앙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해, 이를 근거로 한 '개발과 보존'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도시제안

광주시는 2011년까지 광주지역 시내 5대 저수지를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모두 178억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5대 저수지란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저수지(6만㎡)와 북구 용봉동 용봉저수지(1만9천548㎡), 서구 상촌동 운천저수지(7만4천20㎡), 북구 운암동 운암저수지(2만3천917㎡),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24만4천587㎡) 등이다. 이들 저수지에는 순환 산책로가 설치되고,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어 습지식물원을 조성하는 한편 정자, 파고라, 벤치 등 각종 편의시설과 체육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미 5대 저수지 중 운천저수지와 풍암저수지의 경우 과거 수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하드웨어인 각종 편의시설과 운동시설들은 선진도시들의 저수지나 호수 못지 않다. 이후 나머지 3곳의 저수지에 비슷한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수량을 확보한다면, 광주 곳곳에 시민들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물 공간'이 생겨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시설을, 얼마나 설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찾는 시민들이 어떻게, 무엇을 즐기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이다.

광주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소프트웨어 개발이 급선무



일본 도쿄 이노카시라 공원.

선진도시들은 최근 도심 내 '물 공간'을 포함한 공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찾아서 여유시간을 즐기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히 시민들이 공원을 찾는 것에만 만족하기 보다는, 공원 내외에 상거리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주변 상가까지 복원하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 도쿄 도에 있는 이노카시라(井の頭) 공원 내에 있는 이노카시라 연못은 광주의 저수지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공원 내에는 수상 생물원과 육상 트랙, 테니스 코트 등의 운동 시설은 물론 지브리 미술관, '이웃집 토토로'로 유명한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감독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 등 문화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 공원 내 연못에서는 보트를 탈 수 있으며, 연못을 중심으로 거리화가는 물론 거리마술사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도쿄 도에서 허가를 받아 1년에 15만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고, 주말 등 특정기간에만 영업활동을 한다. 음악제나 콘서트, 만화영화제 등도 열린다.

또 이 공원과 연못을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해 주변 상인과 시민단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원 100년 실행위원회'가 구성돼 시민들의 참여 프로그램 마련, 물과 녹지의 재생, 지역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매력한우' (Attractive Beef) featuring images of beef and promotional text. Includes a phone number 373-8139.

Advertisement for '장수바다장어' (Longevity Sea Eel) featuring a chef and a large bowl of eel. Includes a phone number 373-1110.